

청양지방의 혼속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에 관한 연구

김 진 영

1. 머리말

각 사회에서 개인은 하나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혹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계속적인 이동을 경험한다. 새로운 지위와 집단에 대한 변화에 대해 사람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인생의 고비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일생동안 출생, 사춘기, 결혼, 죽음 등의 연속적인 단계를 경험하며, 각 단계에서는 통과 의례가 행해진다.¹⁾ 따라서 통과 의례는 인간의 단계적 변화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로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느끼게 하는 주술적, 종교적 의례이다.²⁾

의례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술적·종교적 행위를 수반하고, ‘분리-전이-재통합’의 구조로써 나타난다.³⁾ 특히 의례의 과정 중 전이의 단계는 시간적, 공

간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동의 과정이다. 이 단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로써 비일상의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어 인간의 힘보다는 초월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초월적 힘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스러운 힘과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한 힘이 공존한다. 따라서 기존의 집단과 지위에서 분리된 인간은 두 가지 성격의 초월적인 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 나쁜 기운으로부터 전이기에 있는 인간을 보호해 무사히 이동을 마치고 새로운 집단, 새로운 지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속신이 설정된다.

속신은 인간이 유리한 쪽으로 초인적인 힘을 유도하려는 기술로써 인간생활과 함께 발전되어 온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생활문화의 양식이다.⁴⁾ 따라서 속신에는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 문화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으며, 속신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문화의 심층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할

1) A. 반 겐넵(전경수 옮김), 2000, 『(개정판) 통과 의례』, 을유문화사, 31~32쪽.

2) 장철수, 1995,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67~68쪽.

3) A. 반 겐넵(전경수 옮김), 위의 책, 41쪽.

4) 박계홍, 1997, 『(增補)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247~248쪽.

수 있다. 특히 상징적 행위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례의 과정과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설정된 속신도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양지방의 혼례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을 대상으로 하여⁵⁾ 통과의례에서 설정되는 속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충청남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청양군은 중앙에 칠갑산이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동서로 나뉜다. 청양군이 지금의 모습을 띤 것은 1914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통합에 의한 것이고, 이전에는 칠갑산 서쪽의 청양과 동쪽인 정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도 자연히 동서로 나뉘어져, 청양읍과 운곡면, 비봉면 주변의 생활권과 정산면과 목면, 청남면 지역의 생활권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청양군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은 칠갑산 때문이다. 칠갑산은 골짜기가 99개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산이 깊고 험하여 교통의 발달이 어려웠고, 타 지역과의 원활한 교류가 적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칠갑산의 동쪽과 서쪽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적은 칠갑산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정월 보름의 동제와 산신제가 다양한 형태로 보존, 전승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⁶⁾

칠갑산은 청양의 민간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된 『朝鮮の巫覡』에 보면 충청남도 무업자(巫業者)의 수는

122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경기도의 1865명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 모두 인구 1만 명 중 무업자의 비율이 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무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민중들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양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상황으로, 비록 청양지역에서 활동한 무업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영향력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업자들은 산에 거주하거나 기도처를 마련하는 등, 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 청양에서 무업자들이 많이 활동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현재에도 칠갑산을 주변으로 많은 기도처와 암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청양과 칠갑산이 가지는 지리적, 문화적 위치의 영향을 받아 옥녀각시 속신이 전승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청양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옥녀각시 속신의 형성과 전승, 그리고 그 전승에 영향을 준 존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옥녀각시 속신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통과의례에서 나타나는 속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 옥녀각시는 청양 외에도 홍성, 부여, 공주 등 충청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청양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은 청양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속신의 형성원리와 전승과 관련해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6) 국립민속박물관, 1991, 『충남지방 장승, 솟대 신앙』, 412쪽.

2. 청양의 혼속(婚俗)

가. 의혼(議婚)

1960년대 이전까지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17~18세, 늦어도 20세 전에 결혼을 했다. 중신(중매)을 통해 혼인이 약속되면 신랑의 사주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주단자에는 신랑의 이름과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쓰고, 저보자기로 쓴 뒤 청실홍실로 묶는다. 이 사주단자로 택일을 하는데,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고 신부집은 이에 따른다.

함은 대례 3일 전에 함진아버가 들고 오거나,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올 때 함께 가지고 온다. 함진아버는 신랑집 하인으로 나무로 만든 함에 붉은 보자기를 씌워서 메고 온다. 함에는 청실홍실, 치마·저고리감 두 벌을 종이에 싸서 넣는데, 이를 납채(納采), 혹은 채단(綵緞)이라 한다.

함진아버가 신부집 앞에서 ‘함 드립니다’ 하고 외치면 복수⁷⁾가 나와서 피팔떡(시루떡)을 한 봉채시루 위에 함을 받고, 그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한 뒤 방으로 옮긴다. 함이 들어오면 방에 있던 어머니는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물건을 꺼내어 본다. 이 때 노란색이 나오면 좋고, 남색 물건을 꺼내면 부부가 남이 된다고 하고, 검은색 물건을 꺼내면 이별수가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한다.

나. 대례(大禮)와 초야(初夜)

신랑은 대례 당일이나 하루 전에 청색, 홍색의 천으로 짠 나무오리를 가지고 신부집으로 온다. 신랑이 도착하면 오리를 초례상 앞에 내려놓고 절을 한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는 오리를 몰래 치마 속에 감춰서 채독그릇(쌀항아리)에 숨긴다.

신부는 빨간 치마와 파란 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는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큰 땡기를 내린다. 이마와 양 볼에는 빨간 색지를 잘라 연지 끈지를 찍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마와 양 볼에 붙이고 계시지 않으면 두 볼에만 붙인다.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사모 관대를 하며,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신을 신는다. 혼례복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옷을 빌려서 사용한다.

대례상에는 꽃감, 밤, 닭, 청실홍실, 용떡(또는 용꼬리떡), 대나무, 소나무(또는 사철나무)를 올린다. 대나무와 소나무는 평생 변치 않고 푸르게 살라는 의미로 흰병에 꽂아서 신랑 쪽에는 청실, 신부 쪽에는 홍실을 걸어 둔다. 용떡은 흰떡을 청색과 홍색으로 물들여 용 모양으로 말아 올린 것으로 팔을 섞은 찰밥을 대신 올리기도 한다. 닭은 보자기에 싸서 암수 한 마리씩 상에 놓는다.

대례가 시작되면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는데, 집의 방향과 생기복덕에 따라 손이 없는 방향으로 서기도 한다. 신랑신부가 서로 절을 하

7) 청양지방에서는 중매를 중신이라 하고, 중신(중매)을 해 주는 사람을 중신애비라 부른다. 중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로 친척이 중신애비 역할을 했다.

8) 아이도 많이 낳고, 내외 사이가 좋은 복 있는 여자로 시집가는 여자도 복수처럼 잘 살라는 의미로 복수가 함을 받는다. (조○○, 女, 83세, 2005. 7.19 조사.)

고 조배전(交拜盥)을 돌려 마신 뒤 신랑은 밤을 먹고, 신부는 대추를 먹는다. 이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밤은 아들, 대추는 딸을 상징한다. 밤과 대추를 먹이면서 장난을 치기 위해 밤 속에 고춧가루를 넣기도 한다.

대례가 끝나면 닭을 날려 보내고, 안방에서 첫날밤을 지낸다. 신부가 먼저 방에서 기다리고, 신랑이 들어오면 아들 낳기를 바라는 뜻으로 밤을 소리내서 깨문다. 신부의 옷은 반드시 남편이 벗겨 주어야 잘 산다고 하고, 신랑이 신부의 버선 아래부터 뽑거나 오여발(원발)부터 벗겨야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다.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동안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문에 구멍을 뚫으며 쳐다보는데, 사람이 뚫어서 보지 않으면 귀신이 뚫어서 보기 때문이다.⁹⁾

다. 신행(新行)

첫날밤을 보내고, 신랑신부는 폐백닭과 신부가 입을 옷, 신랑의 손가락·밥그릇을 준비해 사령구(네 명이 메는 가마)를 타고 신행을 간다. 이 때 신부를 보살피기 위해 큰아버지나 삼촌 등 신부의 남자 친척이 후행(後行)을 간다.

신행을 가는 길에 서낭당을 지나게 되면 형질을 걸어두는데, 잡귀(雜鬼)가 붙지 말라는 뜻이다. 가마가 마을에 도착하면 진각시들이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온다. 진각시는 신랑 집안의 여자 중 첫 아들을 낳고 복이 많은 사람으로 정하는데, 신부가 손님맞이를 하는 3일 동안 옷을 갈아

입히거나 밥을 먹여주는 등 신부를 돕는다. 청양에서는 신부가 신행을 올 때 옥녀각시를 따져서 온다. 옥녀각시는 신행 갈 때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 '옥녀각시를 옆구리에 끼고 와야 좋다.'는 말이 전해진다.

신부가 시택에 도착해 대문을 들어설 때 짚에 불을 붙여 연기를 쫓고, 늙은 호박이나 바가지를 깨트리는데,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또 땅을 밟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신부는 방문 앞으로 가마를 대어 바로 방으로 들어간다.

신행 온 다음 날 폐백(폐백)을 한다. 시루떡, 밤, 대추 등과 신부가 가지고 온 닭을 흰 종이에 싸서 상에 올린다. 신랑신부가 절을 하고, 시부모님이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며 대추와 밤을 던져주면 신부가 치마폭으로 받는다.

폐백이 끝나고 신부는 혼례복을 입고 3일간 손님맞이를 한다. 이 후 신부는 부엌에 가서 소당술뚜껑을 들어 본 뒤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고, 신랑은 신부집에서 온 사람을 따라 자양(再行)을 간다. 처가에서는 신랑이 오면 나이떡(인절미)을 나이 수만큼 쌓고 그 위에 커다랗게 만든 떡을 얹어서 먹기 어렵게 해서 준다. 그리고는 신랑이 떡을 어떻게 지혜롭게 빼서 먹는지 보고 사람의 됃됨이를 판단한다.

라. 혼속의 특징

청양의 혼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옥녀각시 속신이다. 이것은 신행과정에서 반드시

9) 조○○(女, 83세) 제보, 2005. 7.19. 조사.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 청양사람들은 일정한 순환 주기를 통해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이 신부의 앞이나 뒤로 가지 않도록 신행을 가야 친정과 시택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는 비단 신행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택 문을 들어서서 방향이나 신부가 시택에 도착해서 방에 앉는 방향 등 신부가 시택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옥녀각시 방향은 택일의 과정에서 알아보는데, 청양에서는 신랑집에서 택일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택일은 혼례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로 지관이나 점쟁이 등을 통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신부집에서 택일하는 것과 달리 청양에서는 신랑집에서 담당한다.

청양에서 혼례는 여성을 중심으로 의례가 행해진다. 신랑집에서는 택일이나 혼례의 모든 과정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 신부집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초례상의 모든 음식과 혼례의 제반사항을 모두 관할한다. 특히 함이 왔을 때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복수가 함을 받는다. 또한 혼례 자체가 신부의 생활환경과 지위의 변화가 중심인 의례이기 때문에 신부를 혼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양지역에서 행해진 혼례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택일과 폐백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특히 신행 과정 속에서 옥녀각시라는 독특한 속신이 전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3. 옥녀각시 속신의 양상

옥녀각시는 혼례의 과정 중 신부가 신행을 갈 때 반드시 금(禁)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속신이다. 이는 혼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금기의 속신 중 하나로 충청남도 청양, 부여, 공주, 홍성 등의 지역에서 독특하게 나타난다. 청양에서는 ‘옥녀각시’, ‘옹녀각시’, ‘옥녀살’ 등으로 불리는데, 보통 ‘옥녀각시’라 한다. 그리고 옥녀각시를 따져서 신행 가는 것을 ‘옥녀각시 찌고 간다’고 하는데, ‘방비’라 하기도 한다. 옥녀각시 속신은 신행과정에서 설정되는 속신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지며, 그 형성원리와 분포를 통해 청양에서 전승되고 있는 옥녀각시의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가. 옥녀각시 속신의 형성과 분포

1) 옥녀살의 원리

옥녀각시는 방위의 순환원리를 기초로 한 것으로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천기대요』는 조선 후기 민·관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던 방서(方書 : 방법과 기술을 적은 글)이다. 원전은 명나라 임소주(林紹周)에 의해 쓰여졌고, 1653년 성여훈(成汝燾)에 의해 우리 실상에 맞게 고쳐져 간행되었다. 이후 지백원(池百源) 등에 의해 수차례 수정되어 민간에도 보급되었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의거하여 음택(陰宅 · 喪葬), 양택(陽宅 · 起造), 혼인(婚姻), 이주(移住)에 관한 일과 입학(入學), 기복(祈福), 출행(出行), 행선(行船) 등의 길흉일(吉凶日), 흉살(凶

煞) 등 관혼상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길흉을 가리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개인과 집단생활의 추상적인 시간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속신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천기대요』에는 옥녀각시 속신의 근간이 되는 옥녀살(玉女煞)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녀살(玉女煞)

이 옥녀살(玉女煞)이 닿는 방위(方位)로는 신행(新行)을 피하는 것이다.

春三月-東方(寅卯辰), 夏三月-南方(巳午未),
秋三月-西方(申酉戌), 冬三月-北方(亥子丑).

『천기대요』에 기록된 옥녀살은 신행에서의 살이 닿는 방향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동·남·서·북으로 순환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비책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방향을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간에서 옥녀각시는 1월~3월은 동쪽, 4월~6월은 남쪽, 7월~9월은 서쪽, 10월~12월은 북쪽으로 옮겨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신부의 집을 기준으로 신랑집의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이 택일을 한 때의 옥녀각시 방향과 일치할 경우에는 신행길을 돌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옥녀각시 자체가 택일을 한 날과

신랑, 신부의 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택일을 할 때 옥녀각시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다. 결국 민간에서의 옥녀각시와 『천기대요』에 기록된 옥녀살은 그 원리와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천기대요』가 민간의 속신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옥녀살은 옥녀각시의 근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관의 경우 옥녀각시를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순환의 방향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시간의 설정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천기대요』와 민간에서는 달(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관은 날(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¹⁰⁾ 이들은 1·2일은 동쪽, 3·4일은 남쪽, 5·6일은 서쪽, 7·8일은 북쪽, 9·10일은 승천(昇天)으로 살이 없다고 본다. 이 방법은 민간에서 손 없는 날을 보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지관은 옥녀각시를 독립된 의미와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닌 손과 동일한 의미로써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옥녀각시 자체를 부정한 기운으로 보고 있고, 시간과 공간에 의해 설정된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지관과 경쟁의 방법적인 차이는 옥녀각시에 대한 인식과 민간에 전달된 영향력의 차이일 뿐 옥녀각시를 논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옥녀각시는 혼례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성립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혼례의 택일이라는 시간성과 신행이라는 공간적 이동에서 옥녀각시 속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설정 기준에 있어서도 옥녀각시는 달(月)에 의한

10) 홍○○(男, 93세, 남양면 금천리, 지관) 제보, 2005. 7. 17 조사.

시간의 순환과 동-남-서-북이란 방위의 순환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옥녀각시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의 순환이고, 이것이 의례의 과정 속에서의 부정을 피하려는 관념과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옥녀각시 속신의 양상

공간과 시간의 순환원리에 의해 형성된 옥녀각시는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양에서 옥녀각시를 따져서 실행을 가는 것을 ‘옥녀각시 찌고 간다’라고 하는데, 실행길의 방향만 따지는 경우와 실행 날짜, 시택으로 들어오는 방향, 시택에서의 신부의 좌향(坐向) 등 실행의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실행길의 방향만 따지는 경우

〈사례 1〉 조○○(72세, 청남면 천내리)

청남면 상장리에서 17세 때 시집을 왔다. 신부가 탄 가마가 시택으로 오는 길에 살이 끼는 것을 옥녀각시라고 하는데, 이 옥녀각시를 피하기 위해 옥녀각시 방향으로 난 끝은 길로 와서는 안되고, 방향을 피해 일부러 돌아서 갔다. 이렇게 옥녀각시를 피해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을 ‘방비’라고 한다.

〈사례 2〉 백○○(77세, 남양면 봉암리)

보령에서 21세에 시집을 왔다. 고향에서 남양면으로 오는 바른 길이 있었지만 옥녀각시 방향 때문에 청양읍으로 돌아서 실행을 왔다.

〈사례 3〉 성○○(83세, 화성면 매산리)

홍성군 화양리에서 18세에 시집을 왔다. 만나절 만에 매산리까지 오고, 마을 입구에서 옥녀각시 방향 때문에 산으로 돌아서 시택으로 왔고, 마가지를 깨고 안방에 앉았다.

나) 시택으로 오는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 경우

〈사례 1〉 윤○○(71세, 목면 지곡리)

장평면 중추리에서 21세에 시집을 왔다. 당시 20을 넘기면 노처녀라고 했기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 마을 입구에서 시택사람들이 마중을 나왔고, 옥녀각시를 옆매이에 찌고 와야 잘산다고 해서 시택에 들어갈 때 울타리를 뜯어서 옆걸음으로 들어갔다.

〈사례 2〉 김○○(76세, 청양읍 학당리)

대치에서 18세 때 시집을 왔다. 실행 때 옥녀각시 방향을 따져서 산을 넘어서 왔는데, 평소 같으면 만나절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를 하루를 걸려서 돌아서 왔다. 시택에서는 안방이 옥녀각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방에 앉았다. 첫째 딸이 홍성으로 시집을 갈 때 옥녀각시를 딸에게 알려주어 보냈다. 하지만 그 밑으로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옥녀각시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

〈사례 3〉 조○○(83세, 대치면 광금리)

19세 때 예산에서 시집을 왔다. 좋은 날이 없어서 사주를 보고 3년 만에 시집을 왔는데, 청양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시택에서 보낸 가

마를 타고 시택으로 왔다. 마을 입구에는 진각시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옥녀각시를 피해 울타리를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방에 앉을 때에도 아랫목에 앉지 못하고 윗목에 앉았다. 시집을 오고 몇 달 후 시누이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옥녀각시를 봐주었다. 그런데 잘못하여 시누가 옥녀각시를 뒤에 끼고 갔고, 그 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옥녀각시 살은 무서운 것이고 꼭 피해야 한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옥녀각시 속신은 신행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들로 나타난다. 『천기대요』에는 옥녀각시가 신행에서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나)의 사례들처럼 대문을 뜯거나 시택에서 앉는 방향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의 사례들이 옥녀각시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수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옥녀각시는 위에서 살펴본 행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화된 금기를 설정한다.¹¹⁾

- 옥녀각시가 신부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봐야 한다.
- 신부의 오른쪽이나 왼쪽이 손 없는 방향이다.
- 옥녀각시를 끼고 와서 손 있는 방향으로 앉으면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한다.
- 신행길에 옥녀각시가 있는 곧은길로 오게 되면 살이 깎인다.
- 신부가 오여편(왼쪽)에 옥녀각시를 찌고 가면 별 탈이 없

으나 바른편(오른쪽)에 찌고 가면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마박(이마)에 붙이고 가면 그 집안이 망하거나 우환이 끊는다. 그리고 옥녀각시를 엮고 가면 친정이 망한다.

- 옥녀각시가 등이나 이마에 끼면 안 좋다.
- 옥녀각시를 등에 짊어지면 친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양 쪽 옆구리에 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마에 싣고 가면 시택이 좋지 않다.
- 옥녀각시를 이마에 찌고 오면 환란이 든다.

옥녀각시에 대한 구체화된 속신은 동서남북의 실질적 방향이 아닌 이마, 겨드랑이 등의 신체부위로 나타난다. 이는 지관이나 경쟁이 등 옥녀각시의 내용을 알려주는 존재와 이를 행하는 민중들 사이에 옥녀각시의 방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옥녀각시의 실질적 방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택일을 한 날에 신부가 어느 방향으로 신행을 가고, 그 과정에서 신부가 옥녀각시를 피했느냐, 피하지 못했느냐가 속신의 중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동의 주체인 신부의 신체를 이용해 앞, 뒤, 옆 등으로 옥녀각시 방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자신이 신행을 올 때 옥녀각시의 방위가 실제로 동쪽이었는지 서쪽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앞, 뒤, 옆 등의 추상적 방위로만 기억하고 있다.

옥녀각시를 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옥녀각시를 앞으로 보고 가는 경우 시택이 좋지 않고, 뒤인 경우 친정이 나빠며,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행 가는 앞이나 뒤로 옥녀각시가 있는 것은 옥녀각시

11) 임동권 외, 『靑陽의 冠婚喪祭와 風水』, (청양문화원, 2003)에 수록된 내용과 2005년의 보충조사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피하지 못해 앞을 보고 가는 것은 시택의 우환, 다음을 친정의 우환으로 한 것이다. 반면 신부의 옆으로 옥녀각시가 놓이면 옥녀각시 방향과 전혀 무관하게 신행을 가는 것이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옥녀각시는 살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토대로 실제 신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위와 구체화된 내용의 금기들로 드러나 있고, 이를 통해 청양지역 사람들의 옥녀각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옥녀각시 속신의 분포

앞서 청양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의 양상을 속신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통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옥녀각시 속신의 분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옥녀각시에 대한 다양한 행동을 앞서 분류한 신행길의 방향만 따지는 경우와 시택으로 오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의 지도를 보면 옥녀각시 속신은 청양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옥녀각시를 통한 행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치면·장평면·청양읍·운곡면·정산면은 신부가 시택으로 오는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 경우가 더 많으나, 청남면·화성면·남양면의 경우 옥녀각시를 단지 신행길의 금하는 방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앞 장에서 밝혔듯 옥녀각시를 시택으로



〈그림 1〉 청양군 내 옥녀각시 속신의 분포

오는 전 과정에서 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이 강한 행위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칠갑산을 주변으로 한 산간지역이다. 칠갑산 주변 지역은 험한 산세에 의해 외부와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했고, 자연히 민간신앙이나 속신과 같은 정신문화적 요소들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옥녀각시 역시 그 중 하나로 칠갑산의 고립과 단절이라는 지리적,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칠갑산 주변으로 강한 믿음을 수반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게 된 것이다.

또한 칠갑산에는 옥녀각시 속신에 대한 지식을 민간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존재인 경쟁이나 암자승이 생활공간이나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칠갑산 주변 지역으로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자연히 옥녀각시에 대한 강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청양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는 지역적,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으로 칠갑산의 주변지역으로는 옥녀각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수반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모체

1) 경쟁이

경쟁이는 청양지방에서 법사(法師)를 일컫는 말이다. 법사는 앓은곳을 주관하는 무당으로 맹인(盲人) 점장이인 관수(判數)가 변하여 된 것이다.¹²⁾ 맹인이 점을 치는 풍속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점복(占卜)에 능통한 맹인들이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數), 점주(占籌) 등을 담당하였고, 맹승(盲僧)들은 기우제를 지내거나 치병(治病)을 위한 기도, 독경, 축수(祝壽) 등을 하였다. 이러한 풍속이 이어져 민간에서는 이들을 관수 또는 경객(經客)라 불렀고, 이 말이 비천한 의미라 하여 불교용어인 법사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이다.¹³⁾

경쟁이는 점을 보거나 택일, 사주, 궁합, 관상(觀相)을 보며, 앓은곳을 담당한다. 이는 경쟁이가 경(經)의 학습을 통해 입무(入巫)한 무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곳을 위해 『옥추경(玉樞經)』을 중심으로 『천수경(千手經)』, 『당산경(堂山經)』 등을 학습하고, 택일 등을 위해 『천기대요』, 『만세력』 등을 함께 학습한다.

경쟁이는 『천기대요』로 옥녀각시를 따지는데, 이미 언급했듯 달(月)을 기준으로 3개월에 한 번

씩 동-남-서-북으로 방향이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경쟁이들이 옥녀각시를 독립된 의미와 기능을 가진 살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청양에서 혼례는 여성 중심으로 신랑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신부집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준비한다. 또한 혼례의 의미도 신부가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여성의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쟁이는 평소에 안택이나 독경, 축수 등 여성이 주관하는 의례를 함께 한다. 따라서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혼인에서 경쟁이의 영향력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택일은 혼례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례의 신성성과 의례성이 함축된 요소이다. 즉 택일을 언제 하느냐는 혼례의 성립과 혼인 후의 가족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택일을 할 때 평소 관련을 맺고 있던 경쟁이를 찾았을 것이고 택일을 하면서 옥녀각시의 내용이 함께 전달되었을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 지관과 경쟁이는 옥녀각시를 보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경쟁이의 방법이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경쟁이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경쟁이는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에 있어서 민간에 그 내용을 전하는 모체이고, 혼례의 중심이 되는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가장

12) 이필영, 2000, 「대전, 충남지역의 민간신앙 구조와 성격」, 『충청학연구』 1, 111~112쪽.

13) 오문선, 1994, 『충청도 앓은곳 연구 : 충남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0~11쪽.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암자승

암자승¹⁴⁾은 암자에 정주하는 세속화된 승려를 말한다. 암자는 본래 승려들의 수행을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종교적 공간이다. 하지만 민중들과 교류가 잦아 세속화된 유행승(流行僧)과 무당들이 자신들의 정주공간을 ○○암이라 부르게 되면서 민간에서는 반승반속적(半僧半俗的), 혹은 반승반무적(半僧半巫的)의 공간으로써 인식하고 있다.¹⁵⁾

청양에도 칠갑산 주변으로 많은 암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곳이다. 암자승은 불교의식과 함께 개인치성 및 택일·사주·안택·작명(作名) 등을 한다. 이것은 본래 경쟁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의례라는 점에서 경쟁이와 암자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또는 비슷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암자승도 경쟁이와 마찬가지로 택일의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데, 이들이 옥녀각시를 보는 방법은 경쟁이들이 보는 방법과 동일하다. 결국 이들 암자승은 경쟁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무속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게다가 경쟁이들이 경(經)을 학습하는 공간이 암자라는 점¹⁶⁾은 경쟁이와 암자승의 유사한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옥녀각시 전승에 있어 경쟁이와 암자승은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민○○(女, 83세) 제보자에 의하면 옥녀각시는 불교신자들이 믿는 것인데, 요즘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암자를 신앙공간으로 삼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교신자들이 믿는 옥녀각시란 암자승에 의해 전달된 옥녀각시 속신으로 암자승이 옥녀각시 전승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암자승은 여성들과의 신앙적인 관계와 역할이 경쟁이와 유사하고, 암자승의 속성 자체가 무속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경쟁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옥녀각시를 택일의 과정에서 달(月)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암자승도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모체로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적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암자와 암자승의 반승반무적 성격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3) 지관(地官)

지관은 풍수법을 통해 땅의 기운을 읽고, 건축이나 묘지 등 목적에 따라 좋은 땅을 파악하는 사람이다.¹⁷⁾ 지관을 하기 위해서는 한문실력은 물론 음양오행(陰陽五行), 역법(曆法) 등의 지식을 함께 쌓아야 한다. 그래서 지관은 풍수법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택일, 생기복덕 등 민간의

14) 탁발승, 유행승, 떠돌이 중 등으로 불렸으나 본 논문에서는 반승반무적 공간인 암자를 강조하기 위해 암자승이라 칭한다.

15) 편무영, 1998,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215~216쪽.

16) 김석환(男, 70세, 대치면 광금리, 경쟁이, 2005. 7. 20 조사.)은 15세부터 운곡면에 있는 용문암에서 경을 배웠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쟁이들이 암자에서 경을 배워 활동한다고 한다.

17)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저(최길성 옮김), 1991, 『韓國의風水』, 명문당, 300쪽.

의례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로 마을에서 ‘글을 잘 아는 사람, 낱을 보는 사람, 낱짜를 보는 사람’ 등으로 불렸다. 이렇듯 지관은 민간의 생활 속에서 속신이나 세시(歲時)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특히 의례의 신성성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택일이나 지관의 선출을 위한 생기복덕을 따지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혼례를 치를 때 지관을 찾아 택일을 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또한 옥녀각시는 택일과 함께 보기 때문에 지관도 옥녀각시를 볼 수 있다.

지관은 옥녀각시를 보는 방법에서 경쟁이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옥녀각시를 날(日)을 기준으로 동·남·북·서로 순환하는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손이 없는 방향을 따지는 법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지관이 옥녀각시를 독립적인 의미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지관을 옥녀각시의 전승모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관도 옥녀각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신행과정의 속신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옥녀각시를 살로 인식하든 손으로 보든 간에 모두 의례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설정되는 속신으로 혼례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관도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모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옥녀각시 속신에 대한 지관의 영향력이다. 지관은 옥녀각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고, 특히 민간에서는 경쟁이와 암자승이 사용하는 달(月)을 기준으로 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속신의 전승모체로서의 영향력은 경쟁이나 암자승에 비해 지관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지관은 옥녀각시 전승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경쟁이나 지관에 비해 작은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기타

앞서 언급한 경쟁이, 암자승, 지관 외에도 점쟁이나 마을의 할머니가 옥녀각시를 봐 주기도 하였다. 청양에서는 본래 강신(降神)을 통해 무업(巫業)에 종사하는 여자 점쟁이를 선거리라고 불렀다. 이들은 경(經)의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택일을 하거나 옥녀각시를 보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직업적으로 점술을 학습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택일과 옥녀각시를 보는 선거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⁸⁾ 이 선거리들도 옥녀각시를 신행에서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 인식하여 택일의 과정에서 본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지관, 경쟁이, 암자승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들은 달(月)과 날(日)을 모두 따져서 옥녀각시를 보고, 신랑신부의 사주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부적과 살풀이를 통해 옥녀각시를 피할 수 있

18) 청양에서는 60년대 이후 학습한 무당들이 나타나 점술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선거리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청양에서는 경쟁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점을 주업으로 하는 무속인을 모두 선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다고 여기기 때문에 살을 막는 부적을 써서 시택에 붙이게 하거나 혼례 후에 살풀이를 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에서 옥녀각시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옥녀각시를 보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옥녀각시에 대한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의 노인들이 옥녀각시를 봐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것은 경쟁이나 지관과 같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스스로 옥녀각시 속신을 인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청양지역에서 옥녀각시 속신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옥녀각시를 전하는 모체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옥녀각시의 원리 자체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

혼인의 과정에서 택일과 사주, 좋은 방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인을 잘 치르기 위한 인간의 당연적인 행위와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리고 옥녀각시의 근간이 되는 『천기대요』의 옥녀살은 책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옥녀각시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속신인 것이다. 하지만 옥녀각시는 청양, 홍성, 부여, 공주 등지에서 나타나며 특히 청양지역에서는 옥녀각시에 의한 신행과정의 다양한 행위와 금기가 나타난다. 이는 청양의 지리적 영향에 의해 분리되고 고립된 문화적

속성과 경쟁이, 암자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청양에서 혼례는 여성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택일과 사주를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쟁이가 여성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가 사주·택일을 보면서 여성들에게 옥녀각시의 원리와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이는 청양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유행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칠갑산의 지리적 조건과 그로 인한 문화적 특징, 그리고 암자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칠갑산은 산이 깊고 험해서 타 지역과의 교류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문화가 잘 보존되고, 호환(虎患)과 산짐승의 피해가 많아 사람들은 초월적인 신(神)의 존재나 속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¹⁹⁾ 옥녀각시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혼례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고, 전이의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나쁜 기운을 피하고자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게 되면서 옥녀각시라는 속신을 강하게 믿게 된다. 그래서 분포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간지역으로 옥녀각시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로 인한 행동이 조사되는 것이다.

칠갑산은 골짜기가 깊어 무속인의 기도공간으로 알맞고, 지역주민들이 신에 대한 믿음도 강해 예전부터 많은 암자들이 있어왔다. 암자는 암자

19) 이재열·강희경·설동훈, 2004,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백산서당, 33~35쪽.

승에 의해 옥녀각시를 볼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옥녀각시 전승의 중심인 경쟁이의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암자를 주변으로 속신에 대한 믿음이 강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양에서 나타난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은 혼례의 중심인 여성이 경쟁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옥녀각시를 접할 수 있었고, 칠갑산의 문화적·지리적 요인으로 속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면서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칠갑산 주변으로 옥녀각시 전승과 관련한 경쟁이, 암자승이 학습하고 기거하는 암자가 많았다는 점도 전승의 원동력이자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라. 사회적 변화와 옥녀각시 속신에 대한 인식

산업화로 인해 속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옥녀각시 속신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된다. 하지만 옥녀각시 속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식장의 등장이다. 혼례의 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를 타고 신행을 가거나 기념사진을 찍고, 선물로 돈이 오가는 등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혼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예식장의 등장은 혼례의 틀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예식장은 의례의 공간을 집에서 분리시켰으며, 그에 따른 의례의 과정과 의미, 형식 또한 변화시켰다. 특히 신행의 과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신행에서 따르게 되는 옥녀각시 속신 또한 행해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결국 옥녀각시 속신의 전승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쟁이와의 관계가 긴밀한 집안에서는 지금도 택일을 할 때 옥녀각시를 보기도 한다. 물론 신행의 과정이 사라지고, 속신에 대한 믿음도 약화되어 실제로 옥녀각시를 따져서 신행을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릴 때 옥녀각시 방향을 따져서 절을 하거나 받기도 한다. 이는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결혼식 틀 속에 맞춰져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²⁰⁾

청양에서 옥녀각시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혼례의 변화로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되었다. 또 신행길, 신행일, 신부의 좌향 등의 다양한 현상은 절을 하는 방향으로 간소화되었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첫 인사 때 옥녀각시의 방향을 따지는 것은 시댁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신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옥녀각시는 혼례의 과정과 형식, 의미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믿음에 대해서는 약화되고, 신부의 출입방향이나 신행길을 보는 행위양상은 사라졌으나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릴 때 절을 하는 방향을 보는 형태로 그 원리와 의미가 간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0) 김○○(남, 70세, 대치면 광금리)에 의하면 30년 전까지 대부분 옥녀각시를 보았지만 지금은 한 두 집만 묻는다고 한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릴 때 옥녀각시를 따져서 절을 하는 집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치면 사람이란 것만 알려주었다.

4. 옥녀각시 속신의 의미

가. 살(煞)의 한 종류로 설정된 옥녀각시

인간은 변화된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변화를 주는 이사, 건축, 통과례의 과정에서 나쁜 기운과 방향을 피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煞)이라 한다. 살은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손의 방위를 따지는 것이나 대장군(大將軍), 삼살(三煞)은 옥녀각시의 원리와 방법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손의 방위를 따지는 것은 날(日)을 기준으로 하는데, 1·2일은 동, 3·4일은 남, 5·6일은 서, 7·8일은 북, 9·10일은 상천(上天)으로 살이 없는 날이다. 민간에서 9일과 10일을 손이 없는 날이라 여기는 것도 이 방법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장군과 삼살은 해(年)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장군은 북쪽을 시작으로 동-남-서-북으로 3년에 한 번씩 방위가 이동하고, 삼살은 대장군과 반대로 동-북-서-남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동한다.

손의 방위를 따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로 적용되고, 삼살과 대장군은 의례, 제의, 행사, 이사, 건축 등 인간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일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아서 일을 처리한다.

살은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살을 피해야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수반하고, 대장군·삼살·손의 방위 중 하나

라도 맞지 않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혼례 역시 사람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손의 방위·삼살·대장군을 따지는데, 이를 기준으로 혼례식장의 방향이나 초례상의 방향 등을 결정한다.

옥녀각시는 달(月)을 기준으로 방향의 순환구조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는 대장군·손의 방위를 보는 것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 또한 옥녀각시를 막을 방법이 없고,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도 일차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 다른 살들과도 동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기대요』에 옥녀살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옥녀각시는 살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옥녀각시는 혼례라는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흉한 기운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 혼인에서의 옥녀각시의 의미

옥녀각시는 혼인이라는 통과례의 과정에서 형성된 속신이다. 옥녀각시 속신은 신행을 중심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 현상에서는 시택으로 들어가는 방향, 좌향, 신행일 등으로 확대되어 울타리를 뜯거나 벽을 보고 앉는 등 다양한 행위로 나타난다. 이는 옥녀각시를 단지 신행의 과정에서 부여된 살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전체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혼인은 신랑 신부가 모두 치르는 의례이지만

신부에게 더 큰 의미로 작용한다. 그것은 신부에게 있어 혼인은 역할과 지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생활양상 모두가 변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고, 시댁에서는 새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의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신부가 혼인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부의 입장에서 혼인을 반 겐넵(Van Genneep)의 ‘분리-전이-통합’의 의미로 해석하면, 신부가 친정에서 분리되어 혼례의 의례적 전이기를 통과해 시댁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철수의 ‘고비’ 관념을 통해서 보면 혼인은 친정을 떠나 새로운 집단인 시댁으로 옮겨 가는 인생의 고비이다. 즉 혼인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단으로 공간적 이동을 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시댁의 입장에서 신부는 이인(異人)으로 혼례는 이인을 자신의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시댁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신부가 들어오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신부가 부정한 기운을 얻어서 시댁의 구성원이 되면 그 부정이 시댁으로 모두 옮겨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올 때 바가지를 깨거나 불을 뛰어들어 정화를 하고, 신부가 시댁으로 오는 과정에서 부정한 기운이 들지 않도록 가마에 호랑이 가죽을 씌우는 것이다. 또한 의례의 신성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성원을 탈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으로 혼인 전에 신랑과 신부의 공합을 보고, 가장 좋은 날로 택일을 하며, 살이 없는 방향으로 신부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례의 과정에서는 의례의 신성성을 유지하고 시댁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속신을 설정한다. 옥녀각시는 그러한 속신의 하나로써 속신의 원리와 전승 주체, 형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청양지방의 문화가 반영되어 유행된 속신이란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결국 옥녀각시는 처녀에서 신부로 사회적 위치가 이동되는 과정인 혼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삶과 부정을 막으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시댁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우환을 막으려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옥녀각시

옥녀각시 속신은 의례의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의례의 과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옥녀각시를 통해 민중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옥녀각시는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방위가 변화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손의 방위나 대장군, 삼살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손의 방위는 날(日)을 기준으로 하고 옥녀각시는 월(月), 장군과 삼살은 해(年)를 시간적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방위판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설정되어야 옥녀각시의 속신이 성립될 수 있다.

옥녀각시는 택일이라는 의례적 시간성에 의해

그 시기가 결정되고,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 따라 옥녀각시의 방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중 어느 하나가 이동하게 되면 옥녀각시 속신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옥녀각시는 시간과 공간, 인간이 삼위일체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속에는 민중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담기게 된다.

실제 옥녀각시 속신에 담긴 동서남북의 방위의 실체는 민중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 방위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일 뿐이다. 민중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신부에게 설정된 그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없고, 시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지관이나 경쟁이들은 옥녀각시의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지만 민중들은 앞, 뒤, 옆이나 옆구리, 등, 머리와 같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로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인식체계는 인간이 행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만약 옥녀각시 속신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길을 돌아가거나 벽을 보고 앉는다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옥녀각시 속신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옥녀각시는 부여된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기질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옥녀각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관계를 택일이라는 의례의 시간성과 신부의 생활공간 이동이라는 공간성을 통해 설정한 속신으로 민중의 시간관과 공간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함께 담겨있는 현상인 것이다.

5. 맺는말

옥녀각시는 청양지방의 혼인에서 나타나는 속신으로 신행의 과정에서 살이 있는 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옥녀각시는 주로 지관과 경쟁이를 중심으로 암자승, 선거리와 같이 음양오행과 역법을 통해 택일이나 사주 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 옥녀각시는 『천기대요』에 기록된 옥녀살과 동일한 것으로 신행길에서 피해야 하는 방위이지만 민간에서는 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흉한 기운을 없애는 것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에서 옥녀각시는 속신으로 수용되어 옥녀각시가 신부의 앞이면 시택이 망하고 뒤면 친정이 망하니 옆이 가장 좋다고 하고, 옥녀각시를 피하기 위해 신행길을 돌아서 가거나 울타리를 뜯기도 하고, 신행 날짜가 변경되기도 하며, 신부의 좌향이 결정되는 등 옥녀각시에 의해 다양한 행위들이 파생되어 나타난다.

옥녀각시를 살의 한 종류로 보면 흉한 방향을 피해 인간을 보호하고, 의례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옥녀각시는 혼인이라는 특정한 의례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살의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혼인의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혼인은 신부가 새로운 집단인 시택에 정착하고, 시택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으

로 옥녀각시는 혼례로 인한 이동에서 나타나는 우환과 부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옥녀각시 속신은 택일이라는 시간성과 방위라는 공간성을 통해 설정된다. 따라서 옥녀각시에는 민간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의미부여 되는 것이다.

옥녀각시는 경쟁이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이는 혼례의 중심인 여성이 안택·치병 등을 통해 경쟁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혼례에서는 사주·택일을 이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양지방은 고립된 문화적 특징과 칠갑산 주변으로 경쟁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암자승이 기거하는 암자가 많았다. 이 암자는 경쟁이의 학습공간이자 암자승의 정주공간이다. 이러한 암자와 칠갑산의 고립되고 변화하지 않는 문화는 자연히 칠갑산을 중심으로 속신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옥녀각시의 분포는 청양지방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칠갑산을 중심으로 믿음이 강한 지역에 분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옥녀각시의 속신도 1970년대 이후 약화되었는데, 청양읍에 들어선 서양식 예식장은 옥녀각시 속신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예식장의 등장으로 결혼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풍속은 신행의 생략을 가지고 왔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도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옥녀각시 속신은 비록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신혼여행 후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릴 때 절을 하거나 절을 받기 위한 방향을 보기 위한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

다. 즉 옥녀각시를 따져서 신행길을 잡고 울타리를 뜯는 등의 행위는 사라져, 70~90대 노인들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상으로 청양지방의 혼인풍속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을 대상으로 통과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신의 형성과 전승,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과례에서의 속신은 의례가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요소가 응집된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속신의 연구가 함께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천기대요』에서의 ‘옥녀살’이 청양에서 ‘옥녀각시’로 속신으로써 전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경쟁이, 암자승, 지관 등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옥녀각시 속신과 지역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청양 주변의 공주, 홍성, 부여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 통과례에서 나타나는 속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성여훈, 大韓曆法研究所 옮김, 1977, 『(詳譯)增補參贊秘傳天機大要』, 南山少年教護相談所.
-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1, 『충남지방 장승, 솟대 신앙』.
- 박계홍, 1997, 『(增補)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 오문선, 1994, 『충청도 앓은곳 연구: 충남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 강희경 · 설동훈, 2004,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백산서당.
- 이필영, 2000, 「대전, 충남지역의 민간신앙 구조와 성격」, 『충청학연구』 제1권, 한남대 충청학연구센터, 101~113쪽.
- 임동권 · 정형호 · 임장혁, 2003, 『靑陽의 冠婚喪祭와 風水』, 청양문화원.
- 장철수, 1995,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 A. 반 겐넵(전경수 옮김), 2000, 『개정판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 村山智順(최길성 옮김), 1991, 『한국의 풍수』, 명문당.
- 편무영, 1998,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Abstract

A Study of the Folklore in the Rite of Passage by Oknyeogaksi

Kim, Jin-young (The postgraduate cours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study the folklore as the rite of passage, especially focusing on "Oknyeogaksi" in the marriage ceremony in Cheongyang. The rite of passage was commonly performed not only in the religious ceremony, but also in daily life when a person changed his or her position in a social or a special way. Through the study of the ceremonies, we must understand both formalities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folklore.

A particular folklore, namely, "Oknyeogaksi" has been handed down as the marriage ceremony in Cheungyang, Chungchongnam-do Province(the southern part of the state, Chungchong). On the way of "Shinhaeng"(a bride's trip to the bridegroom's house after the wedding ceremony at her house; the bride rides in a palanquin), a bride should avoid Oknyeogaksi. It is a special direction that a bride takes on the way to the bridegroom's house, and the direction is believed to bring a misfortune. It is established by the date and place of marriage. If the direction of Sinhaeng coincides with the direction of Oknyeogaksi, the bride must make a detour to avoid the direction. Sometimes people even build a new gate in the bridegroom's house to prevent the bride from entering the direction of Oknyeogaksi. Such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features of Chungyang. There is a shaman called "Kyongjaengi" who makes an incantation during her shaman ceremony. She has handed down the knowledge of criterion which provides all the information about Oknyeogaksi and other related customs. Oknyeogaksi is a taboo that wards off a bad luck in the marriage ceremony. Especially for women, marriage is an important process because it is a big turning point for her life, from a virgin to someone's wife. Because of that, it was believed that marriage could be influenced by two contrary powers of a good luck and a bad luck. People especially thought that it was easy for a bride to be exposed to bad spirit on the way of Sinhaeng because it was the transition period. They also believed that she would bring the bad spirit not only to herself but also to the bridegroom's family. Through the Oknyeogaksi custom, therefore, people wish that they could

consecrate the marriage ceremony and protect the new home(bridgroom's house) from misfortune.

To properly understand the folkl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meanings implied by the ceremonies. That is, it is an important step toward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marriage and its ceremony that one knows about formation, transmission and meaning in the rite of passage, Oknyeogaksi.

Key words : Oknyeo, Sinhaeng, Marriage, Folklore, Rite of passage